



Hello, I am Sister Lyn Dwyer. I was born in the Bronx, NY but at the age of three I became a “Jersey girl” when my family moved to New Jersey. I had the good fortune of going to grammar and high schools taught by the Sisters of Charity of Convent Station. In my early teens, I felt I was called to religious life but, then came high school and my dream of going to college to become a dietitian. I think Our Lord led me to Seton Hill College where I could study dietetics and meet the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From the moment I drove up the hill with my parents, I knew there was something very special “on the Hill”. I spent three wonderful years as a student in dietetics and I looked forward to graduating



and becoming a Registered Dietitian but my urge to be a sister must have been stronger as I chose to enter the congregation after my third year at Seton Hill.

As a postulant I was missioned to teach school, first in grade school and later in high school. Although I never wanted to become a teacher I enjoyed working with the students hoping I could inspire them as my teachers had always inspired me. I had the opportunity to teach Home Economics at Sacred Heart High School in Pittsburgh, which allowed me to use some of my training from Seton Hill. Just as I was getting the hang of teaching, Mother Victoria called and asked if I would like to complete my degree in Dietetics. My answer was a yes. It was the best of all worlds. I completed my degree and during the summers, I worked with our two sister dietitians, Sr. Regis and Sr. Letitia, both were very dedicated to their work. They were excellent mentors.



After completing my education and an internship at the Mayo Clinic, I spent 30 years working in the field of hospital dietetics. I am grateful to the community for allowing me to fulfill my religious vocation and work as a dietitian. I always hoped that I bought something different to the position because I was a sister. Using my teaching experience when training employees and working with dietetic students from Seton Hill and interns, I enjoyed seeing young people working together to do the right thing serving patients and fellow employees.

When I left hospital work, I started a third career, as Human Resources manager for Caritas Christi. Luckily, I had experience from both the hospital and my master’s degree in management at Carnegie Mellon. The next year I was honored with election to province leadership. I spent five years on the US provincial council and working in administration at Caritas Christi. I really enjoyed being able to be with the sisters who called Caritas home.



As a council member, I became a trustee on the board of Seton Hill, a wonderful experience and privilege. At the end of my term, I got involved in a variety of volunteer opportunities while also teaching as an adjunct in the Dietetics department at Seton Hill. With my background in Food Service, I

was always interested in programs that would help the needy have food. I was part of the committee that established the Mother of Sorrow’s Food Pantry and I chair our parish Outreach Program. That led to interest in the local food bank of which I am now a board member. I serve on the board of Rendu Services and volunteer at their food pantry. How wonderful to see people work together to assist others.



When I entered in 1959, I never imagined what Our Lord had in store for me. I am thankful for all the opportunities that I have had though the community including the chance for IECM and a trip to Ecuador to work with our sisters in the school and clinic. This was a life changing experience. I try to think with Elizabeth Seton: “Keep well to the grace of the moment... do your best and leave the rest to God.





안녕하세요! 저는 린 드와이어 Lyn Dwyer 수녀입니다. 뉴욕 부롱스(Bronx)에서 태어났는데 세 살 때 뉴저지 Teaneck으로 이사했고 Convent Station 사랑의수녀회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들어가 문법을 배울 수 있는 행운을 갖게 됐지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저는 수도생활로 부름 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서 영양사가 되고 싶었고 이를 위해 대학에 들어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후 씨튼 힐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저는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곳에서 우리 수도회 수녀님들을 만나게 됐으니까요.



부모님과 함께 씨튼 힐 대학이 있는 언덕을 차로 올라가면서 저는 이 곳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느꼈습니다. 영양학과 학부생으로 3년의 시간을 보낸 후 머지 않아 졸업과 공인된 영양사로서의 삶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수도자가 되고 싶다는 강한 열망으로 결국 저는 대학교 3학년을 마친 후 바로 입회하게 됐습니다.



청원기에 들어서서 교사로서 초등학교 1학년을 가르쳤고, 그 후 고등학교에서도 근무했습니다. 한 번도 교사가 되겠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저를 가르쳐 주셨던 훌륭한 은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그분들을 본받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피츠버그에 있는 성심고등학교에서는 '가정' 과목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씨튼 힐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교사로서의 삶에 어느 정도 적응해 갈 무렵, 마더 빅토리아 수녀님이 영양학 공부를 마치고 싶은지 물어 보셨고 저는 이에 응답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학기에 학위를 마무리 하고 영양사인 리지 수녀님 Regis, 리티시아 Letitia 수녀님과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이 두 분은 아주 훌륭한 영양사이자 저의 멘토였지요.

모든 교육과정과 Mayo 클리닉에서 인턴과정을 수료한 후 30년 동안 병원에서 영양사로 일했습니다. 이렇게 수도생활을 하면서 영양사로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준 수도회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늘 저는 영양사이지만 수녀이기에 뭔가 남다른 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희망했었지요. 씨튼 힐 대학의 영양학과 학생들이나 직원들과 일하면서, 또 Adagio에서 인턴과정을 수료하는 가운데 수 많은 젊은이들이 환자들과 동료들을 위해 올바른 봉사를 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



다. 병원 일을 그만 두면서 까리타스 크리스티 인적자원부 담당자로 일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의 경험과 Carnegie Mellon에서 경영학 공부(석사)가 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듬해에는 관구 이사로 선출되어 5년 동안 이사로서 까리타스 크리스티 행정에 관여했습니다. 까리타스 크리스티를 내 집이라 부르는 우리 수녀님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무척 행복했습니다. 관구 이사로서 씨튼 힐 대학 이사회 이사직도 겸임했는데 이를 통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기가 끝나갈 무렵, 자원봉사자로서 여러 분야에 참여했고 동시에 씨튼 힐 대학 영양학과에서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와 관련한 저의 교육적 배경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통고의성모식품저장고 the Mother of Sorrow's Food Pantry의 설립 위원 중 한 사람으로서 일했고 제가 속한 당의 Out Reach(역주: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자선 프로그램)의 책임도 맡게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역 Food Bank(역주: 미국의 무료 급식소)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현재 이 기관의 이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란두 서비스 Rendu Service를 위해서도 중역을 맡고 있고 그곳에서 운영하는 식품저장고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도움을 주면서 더불어 일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1959년 수도회에 입회할 때는 주님께서 저를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요. 이 시간들을 돌이켜 보니 IECM에도 참가할 기회가 주어져서 에콰도르를 방문하고 그곳에 계신 우리 수녀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도 갖기도 했네요. 이 모든 것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IECM 체험을 통해 삶의 전환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순간의 은총을 잘 간직하세요.....최선을 다하고 그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십시오!"라고 하신 엘리사벳 앤 씨튼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